“광주극장은 따뜻한 영혼 지닌 곳”

■ 프랑스 영화 마니아 완다·엘자씨 이메일 인터뷰

세계 예술극장 탐방 인터넷·잡지 기고

한국 20~30대 여성 관객 많아 인상적

지난달 말 광주극장을 찾은 프랑스의 완다 스크롤리안스(사진 맨 왼쪽)와 엘자 라보 씨가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왼쪽에서 두번째), 프랑스문화원 최승원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광주극장에는 프랑스에서 날아온 낯선 손님들이 방문했다. 소르본느 대학에서 영상예술의 법과 행정 석사과정을 수료한 완다 스크롤리안스씨와 HEC경영전문대학에서 미디어 석사과정을 마친 엘자 라보씨였다.

김기덕감독의 영화를 자주 보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배우 최민식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10개월 일정으로 세계를 여행하며 각국의 예술영화관을 탐방하고 있다. 당초 서울 지역 영화관만 둘러볼 예정이었던 이들은 프랑스대사관의 권유로 광주극장을 방문했다.

손으로 그린 간판 눈길

현재 북경에 머물고 있는 두 사람과 광주프랑스문화원 최승원 원장의 도움으로 이메일 인터뷰했다. “따뜻한 영혼을 지닌 극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광주극장 취재 내용은 30일 ‘유로파 시네마’(http : //www.europa-cinemas.org/fr/index.php)에 소개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예술영화관을 방문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게 됐나.

▲유럽에서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영화를, 영화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세계의 영화관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객들과는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하고 세계의 영화관들과의 소통을 모색하려는 목적도 있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일본을 방문했고 중국·태국을 거쳐 인도에서 여행을 마무리한다.

-한국의 예술극장과 다른 나라 예술극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관객들이 매우 젊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 반면 일본과 남아메리카, 유럽은 대부분 관객들이 50세 이상이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예술상영관보다 관객을 끌어오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광주극장의 첫인상은 어땠나.

▲극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다른 나라의 극장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극장 외부의 손으로 그린 간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 극장이 어떤 따뜻한 영혼을 지닌 좀 오래된 영화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광주극장을 취재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떤 거였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관객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화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이 영화관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명성이 높은 잡지에 기사를 쓸 결심을 했다. 워크숍도 매우 흥미로웠고 영화관에서 여는 콘서트나 전시회를 통해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도 참 참신했다.

특히 관객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단체를 돕기 위해 무료상영회(마침 이날은 아름다운재단 돕기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유로파 시네마’에 소개

-여행과 취재 기록은 어떻게 전해지나.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www.tousensalles.com)에 우리의 여행과 만남을 기록하고 방문한 영화관의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프랑스 영화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잡지 ‘에크랑 또딸’(Ecran Total)에 매달 기사를 쓰고 있으며, 알로시네(Allocine)사이트와 유로파시네마에도 사진을 보낸다.

-예술영화관 하면 프랑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프랑스 예술영화관은 어떤가.

▲많은 예술영화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멀티플렉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예술영화상영관들이 디지털 영사기를 소유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았다. 관객층들이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젊은 관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회관에 ‘달맞이 가자’

28일 한가위 공연 … 시립국극단 등 출연

광주문예회관이 한가위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2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달맞이 가자’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과 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악관현악단은 빠른 장단과 신명난 가락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준호 곡 ‘축제’를 선보이며 오유리씨가 국악가요 ‘하늘이여 제발’과 ‘배 띄워라’를 선보인다.

국극단은 힘찬 북소리가 일품인 ‘신의 소리’와 ‘강강술래’ 민요 ‘팔월가’ 등을 선보이며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박범훈 곡 ‘축연무’에 맞춰 화려한 춤을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는 신명난 판굿이 장식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10-9261. /김미은기자 mekim@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크라브첸코

피아니스트 백혜선

정율성음악제 10월 15일 ‘팡파르’

17일까지 광주문예회관 … 재즈·판소리로 재해석 ‘눈길’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5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가 오는 10월 15~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신종플루로 지난 9월 중국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중국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이번 광주무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율성 선생의 곡을 재즈와 판소리로 재해석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 눈길을 끈다.

15일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막 공연은 정율성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음악인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민다. 윤진철씨가 ‘판소리로 엮어 듣는 아! 정율성’을 선사하며 박종화 퀸텟은 정율성이 작곡한 동요를 재즈로 편곡해 들려준다.

또 바리톤 최현수는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을 선사하며 광주시립합창단(지휘자 구천)과 광주평화방송어린이합창단(지휘자 이어진), 소프라노 강숙자, 피아니스트 문현옥씨 등이 출연한다.

중국에서는 중국연안민악단과 5인조 퓨전연주단이 참여하며 피날레 무대는 이광수 사물놀이패의 ‘삼도사물놀이’가 장식한다.

16일은 ‘교향악의 향연’으로 꾸며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대만 출신 지휘자 티모르 올리버 차딕(전 다름슈타트 주립극장 수석 지휘자)이 호흡을 맞춰 정율성 의 오페라 ‘망부운’ 서곡과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선사한다. 또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로 30년 넘게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교수로 재직중인 세르게이 크라브첸코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작품 64’를 협연한다.

마지막 날에는 피아니스트 백혜선 초청 독주회가 열린다. 차이코프스키, 퀸 엘리자베스, 리즈 콩쿠르 등 세계적인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백혜선은 런던심포니, 보스턴 심포니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현재 부산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중이다.

연주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소나타 F장조’, 리스트의 ‘피아노소나타 B단조’, 바르톡의 ‘피아노 소나타’, 바흐·부조니의 ‘오르간 코랄 전주곡’ 중 ‘깨어라, 그 음성이 들리니라’ 등이다.

행사 기간 중 대극장 로비에서는 ‘정율성 삶과 음악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전석 초대. 문의 062-511-1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낙균 … 1930년대 한국사진 흐름’전

의재미술관 25일~10월18일

의재미술관은 오는 25~10월 18일까지 1930년대 한국사진의 흐름을 되새겨 보는 ‘신낙균과 그의 시대-1930년대 한국사진의 흐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진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낙균(1899~1955년), 민충식, 신칠현, 강대석, 문치장, 정해창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유리원판과 최초의 사진학 저술 원본 등 진귀한 사진 자료 등도 함께 전시한다.

1936년 손기정의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했던 신낙균씨는 당시 YMCA 사진과 교수로 취임해 국내 첫 사진학 책인 ‘사진학 강의’ 등을 내고, 최신 사진기술과 인화법을 알린 사진작가이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1930년에 찍은 무용가 최승희의 초상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또 1933년에 서울 주요 지역을 항공 촬영한 문치장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낙균 작 ‘무희 최승희’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최고급관
2관	애자 (15세)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4관	페임 (12세)	
5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6관	국가대표-완결판 (12세)	
7관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8관	어글리 트루스 (18세)	
9관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내사랑 내곁에 (12세)
2관	애자 (15세)
3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4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5관	국가대표 (12세)
6관	해운대 (12세)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7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8관	어글리 트루스 (18세) / S러버 (18세)
9관	페임 (12세)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해운대 (12세)
2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3관	S러버 (18세) /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4관	페임 (12세)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6관	애자 (15세)
7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8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9관	국가대표 (12세)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용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2관	페임 (12세)
3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4관	어글리 트루스 (18세) / 날아라 펭귄 (전체)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5관	애자 (15세)
6관	국가대표 (12세)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7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무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내사랑 내곁에 (12세)
2관	페임 (12세)
3관	애자 (15세)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5관	어글리 트루스 (18세)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6관	국가대표 (12세)

• 무료주차 3시간
(충주 시무소 옆 호남대학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